

## ♫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자울적으로 걷는 사람이다

성경말씀: 뵤전2:9

요즘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뵤전2:9.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 왕가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 사역 제사장, 거룩한 민족(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 특별 소유 백성(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막 살지 않는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선발되었으면 경기장에 나가서 실제로 뛰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지적 영적 도덕적 어둠을 오늘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걷는 사람이다>

### 빛으로 들어가게 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분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2:9).

어떤 빛인가?

#### 1.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요1:9, 고후4:4)

진리, 영, 도덕적인 빛, 말씀이 빛을 준다(시119:130)

사람이 산다는 것의 의미;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삶, 여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

#### 2. 이 빛은 생명이다(요1:4)

이 빛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함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 3.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면 이단의 표지가 있다(예수님, 성령님 부인, 다른 구원자, 다른 복음 등).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표지가 있다. 지혜의 빛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바울에게는 소명이 부여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므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선포하는 것(행26:22-23).

빛, 지혜, 새로운 삶

초대 교회 성도들의 표지: 어둠에서 나와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살전1:9-10)

#### 4. 전도란 무엇인가?

이 빛을 나누는 것, 필연적이다: 어둠에서 나와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임 그래서 빛을 전하게 된다.

복음의 빛에 대해 전도받은 어떤 사람의 간증

“그때는 미개한 시대, 복음이 새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상, 철학,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롬1:16; 고평1:24).

#### 5. 철학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 그러나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빛이 아니다.

대개 철학에 빠지면 교만해진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함(골2:8)

세상 문제의 해결책은 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전도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는 사탕발림이 아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요1:8).

#### 6. 존재의 울림은 이 빛을 담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1.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2. 단정한 삶을 살게 한다.

3. 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

4.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한다.

###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진리를 알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이유?

빛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이유?

그 빛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지 않는 이유?

해답: 실제적으로 그 빛 안에서 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의 영적 권세는 무력화됨.

말씀의 능력이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함(요8:32).

그런데 여전히 부자유함, 영혼의 속박을 느낀다.

이유: 진리를 한 번 깨달은 것으로 되지 않는다. punishment

죄들의 파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화, 즉 이런 진리를 매 시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매 시간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위해 바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 쓴다면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물질의 풍요와 육체의 건강, 이것들만 있으면 부자유함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를 더 많이 느꼈다.

즉 물질의 소유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사형통 번영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갈5:1).

2. 자유와 자율의 문제

우리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율을 강조해야 한다.

자율: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자율 자동차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독립의 자율이 아니라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율

그리스도인: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와 자율

예: 복잡한 도로 위로 차를 몰고 간다. 여러 차들이 있다.

1. 차들이 마음대로 달리는 도로 운전

2. 적당한 곳에 신호등, 속도 표시 싸인 등이 있는 도로 운전

3. 어느 것이 안전한가?

1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제로는 2가 편안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법은 신호등과 속도 표시와 비슷하다.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성에, 하나님의 법, 자연 법에 위배됨, 추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이 망가짐

절제를 잃은 폭식과 폭음: 잠시 잠깐 해방의 자유, 결국 몸을 망침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율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자율

이것이 신앙 교육의 목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자율(마11:29)

### 그 빛 가운데서 걸으라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독교 크게 박해

상투스라는 사람 핍박, 시한 고문과 심문

모든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이름, 민족, 출생지, 신분,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그는 화형 선고, 그럼에도 신앙 고백 유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며 붙여 준 말(행11:26).

상투스의 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종일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진리의 빛, 사랑의 타는 불꽃이 그를 그리스도에게 묶어 버렸다.

상투스의 고백은 존재의 울림

#### 빛 안에서 걸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 영원토록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경험: 날마다 지적 어둠이 물러가는가? 도덕의 어둠이 물러가는가?

성화의 진보가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그 빛 안에서 걷는 것이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인 사람

이런 괴리가 너무 심하면 구원 의심

벧전2:9

우리의 과거 어둠의 모습, 현재 빛의 모습

확실한가?